

일본 박물관, 재정난으로 운영에 심각한 차질

일본박물관협회의 최신 발표에 따르면, 2008년 말 현재 일본의 박물관 수는 지자체의 재정난에 따라 전년대비 21개가 줄어들면서 전후 최초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정관리자제도, 민영화 등 박물관 운영제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.

- 2008년도 말 현재 일본의 박물관 수는 전년에 비해 21개가 줄어든 4,041개(일본박물관협회, 3월 말 발표)로 전후 최초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- 일본의 박물관 수는 전국의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설립함에 따라 전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4,000개를 상회하게 되었음.
- 1951년 박물관법이 제정된 이후 박물관 건설비의 국가 보조, 지자체의 ‘풀셋(full-set)주의’, 고향창생(蒼生)사업 등에 따라 1990년대 말까지 각 지자체에서 박물관 신설 붐이 일어남.
- * 일본의 박물관법에서는 미술관, 역사박물관, 동물원 등이 ‘박물관’에 포함되며,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‘등록박물관’, 요건이 완화된 ‘박물관 상당시설’, 박물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‘박물관유사시설’이 있음.
- 그러나, 최근 들어 지자체의 재정난, 시정촌(市町村) 합병 및 시설 노후화로 전시조차 할 수 없는 박물관이 속속 등장하는 등 운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

- 일본박물관협회(2008년 조사)에 따르면, 작품과 자료의 구입비가 ‘제로’인 박물관이 57%, 2005년 이후 예산이 감소한 박물관이 50%, 2006~08년에 담당직원을 신규채용하지 않은 박물관도 72%에 달함.

○ 사례 1 : 구마모토현 아마쿠사시 신와역사민속자료관

- 1977년 설립. 수장품은 고문서와 민속자료 등 약 3,000점
- 당초 상시 개관했으나 현재는 담당직원이 없어 사실상 폐관 상태에 있으며, 2009년도에는 관람객이 전무했음.

○ 사례 2 : 아오모리시 역사민속전시관

- 1998년 아오모리시가 아오모리현의 신용조합 건물을 빌려 개관. 연간 운영비는 임대료, 인건비 등으로 약 5,000만 엔이 소요. 그러나 재정난으로 2006년 폐관
- 현재 50,000점에 달하는 수장품은 시내 청소공장에 방치

□ 일본의 재정악화에 따라 특히 공립 박물관의 감소가 현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박물관 운영에 대한 새로운 대안마련이 필요

- 현재 ‘박물관 선진 지자체’를 중심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지정관리자제도와 민영화 등의 도입이 늘고 있는 추세임.

<참고자료>

朝日新聞(2010.4.18, 4.21, 5.1)